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과 성인기 표정정서 인식의 관계*

김 해 리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성인들의 정서인식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은 사회정보처리입장에서 표정정서인식 편향과 관련될 것으로 예측하고, 혼합 표정자극을 이용한 정서판단과제를 사용하여 대학생 중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폭력목격 집단(11명)과 폭력 목격 및 신체 학대 중복지험 집단(8명)의 표정정서 인식 편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폭력목격 집단과 중복지험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 대해 분노 편향 반응을 나타냈다. 슬픔/기쁨, 슬픔/놀람 혼합 자극을 슬픔으로 인식하는 편향은 두 집단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분노를 포함하지 않은 혼합 자극을 분석한 결과, 중복지험 집단이 폭력목격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슬픔/놀람 혼합 자극을 분노로 편향되게 인식하였으나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집단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목격 집단과 중복지험 집단이 표정정서인식에서 분노에 대한 과민성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성인기 표정정서 인식의 관계를 탐색하고, 아동기에 신체 학대나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성인들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모 간 폭력 목격, 표정정서인식, 분노, 과민성, 편향, 신체 학대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며, 2011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 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B0011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 : hjlee83@snu.ac.kr, Fax : 02-877-6428

정확한 표정정서 인식은 개인의 대인관계 적응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이를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개인의 대인관계 적응이나 장기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Crick & Dodge, 1994; 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사회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정보 처리는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것으로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차 정교해지고 정확해지는 것이며, 개인이 장기간 다양한 정서적 경험에 노출되지 못하고 특정 사회적 정보에만 빈번하게 노출된다면, 사회적 정보 처리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henk, Putnam, & Noll, 2013). 아동이 분노 표정과 같은 위협 자극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경우 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피나 싸움과 같은 대처를 즉각적으로 취하는 것이 생존과 적응에 도움 되므로, 위협 정보에 대해 편향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Pollak & Sinha, 2002).

Masten 등(2008)은 PTSD 진단을 받은 학대 경험 아동, 진단을 받지 않은 학대 경험 아동,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공포, 기쁨표정인식을 연구하였는데, PTSD 여부와 상관없이 학대받은 아동이 공포 표정을 보다 빠르게 인식하였다. Pollak과 Sinha(2002)의 연구에서는 신체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통제집단에 비해 분노 표정을 인식하는데 더 적은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Gibb, Schofield와 Coles(2009)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Pollack과 Sinha(2002)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아동기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 기쁨, 슬픔표정인식

을 조사한 결과 학대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적은 정서강도에서 분노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다른 표정에서는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Gibb 등(2009)의 연구는 횡단연구이므로 아동기 학대 경험을 성인기에 나타나는 분노에 대한 편향반응의 원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기 표정 정서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상 경험 이후 인지 구조의 변화가 야기되며, 이것이 지속적인 부적응을 야기한다는 이론가들의 주장(Briere, 2002)과 관련된다. 특히 Foa와 Kozak(1986)은 외상 경험 이후 병리적인 인지 구조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다소 위협이 되거나 해롭지 않은 자극을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개인이 인지적, 행동적으로 과장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빈번한 신체학대 경험이 아니더라도 단일 외상 경험도 표정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Scrimin, Moscardino, Capello, Altoe', & Axia(2009)의 연구에서 테러를 겪은 아동들이 통제집단보다 분노와 슬픔의 혼합표정을 분노라고 더 높게 인식하였다.

즉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폭력적 환경에서 위협적 자극에 빈번하게 노출된 개인들이 위협자극에 민감해지거나 이에 대한 편향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Marsh, Adams, & Kleck, 2005). 하지만 대다수 실험 연구들이 신체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성인의 부적응적 정서 인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폭력적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신체 폭력을 당하지 않은 개인의 표정정서 인식 양상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가정 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 간 폭력과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가 빈번하게 동반되며, 부

모 간 폭력 목격이 신체학대에 준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Osofsky, 2003), 부모 간 폭력 목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 간 폭력 목격과 신체학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에서 이를 구별하지 않아, 부모 간 폭력 목격만의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제한점도 있다.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성인은 반복적으로 분노표정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분노표정은 자신과 부모에 대한 위협을 예측하게 하는 시각 자극이므로 분노표정처리에서 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분노에 대한 정보처리 편향이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타인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공격행동을 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야기될 수 있다 (Crick & Dodge, 1994; Gibb et al., 2009; Pollak & Sinha, 2002).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나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대인관계 부적응 양상과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성인들의 표정정서인식을 탐구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Margolin, 2005).

본 연구는 사회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하여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성인이 분노표정정서인식에서 편향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및 신체학대 경험을 기준으로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고 신체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집단(중복경험 집단), 부모 간 폭력 목격만 한 집단(폭력목격 집단),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정서판단과제를 실시하여 중복경험 집단과 폭

력목격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애매한 표정 자극에 대해 분노편향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정서판단과제는 Calder 등(1996)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몰핑기법을 통해 두 가지 원형정서를 합성하여 애매한 표정 자극을 만든 후, 이를 피검자가 여러 정서 범주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하는 절차이다. 실생활에서 표정정서는 보다 미묘하거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성자극이 실제 사회적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고, 원형표정 자극에 비해 인식하기 어려운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인식편향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zuki, Hoshino, & Shigemasa, 2006).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집단이 분노에 대한 인식 편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노가 포함된 혼합 자극 세 종류(분노/기쁨, 분노/슬픔, 분노/놀람)를 제작하였고, 이러한 인식 편향이 과민성을 반영하는지 또는 반응편향을 반영하는지 구별하기 위하여 분노가 포함되지 않은 혼합 자극 두 종류(슬픔/기쁨, 슬픔/놀람)를 제작하였다. 특히 슬픔은 분노와 같이 부정적 정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위협 단서로서의 기능은 떨어지므로, 슬픔이 포함된 혼합 자극을 두 종류 제시함으로써 부적 정서에 대한 편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놀람은 명백한 부적 정서가 아니므로 기쁨/놀람 혼합자극은 본 연구에서 제외했다. 만약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집단이 분노가 포함된 자극과 분노가 포함되지 않은 자극 모두에서 분노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을 경우, 이는 일반화된 분노 반응편향(*generalized response bias*)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노가 포함된 자극을 분노라고 응답하는 비율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날 경우 이는 분노에 대한 과민성을 시사하는 것이다(Richards et al., 2002). 또한 정서인식에 성차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표정정서인식을 살펴보고, 이후 집단별로 분석 시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였다(오경자, 배도희, 200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 폭력 목격 경험이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작용하여 분노가 포함된 표정자극에서 인식편향과 관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것이 반응편향을 반영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노 미포함 혼합 자극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과 예언은 다음과 같다.

가설.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집단이 분노포함 표정자극에 대해 분노인식편향을 보일 것이며, 중복경험 집단은 더 일반화된 편향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및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406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85명의 자료가 모집되었다. 이 중 아동기에 부모간 신체적 폭력을 1달에 1회 이상 목격한 사람은 9.6%였다(총 37명, 남 19명, 여 18명).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과 신체학대 경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동기 부모간 폭력 질문지(CTS2) 및 아동기 외상질문지(K-CTQ) 점수에 따라 선발되었으며, 중복경험

집단은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CTS2)을 1달에 1회 이상 목격한 사람 중 K-CTQ의 신체학대 점수가 9점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하였고, 폭력목격 집단은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CTS2)을 1달에 1회 이상 목격하였고, K-CTQ의 신체학대 점수가 8점 미만인 사람으로 선발하였다. 통제집단은 아동기에 부모 간 신체폭력, 심리폭력 목격경험이 없으며, K-CTQ의 신체학대 점수가 8점 미만이었다. 아동기 이후 일어난 부모 간 폭력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까지 부모 간 신체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통제집단에 최종 선발하였다. 그 결과, 총 385명 중 중복경험 집단은 총 18명(남 10명, 여 8명), 폭력목격 집단은 19명(남 9명, 여 10명), 통제집단은 98명(남 56명, 여 42명)이었다.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3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중복경험 집단 8명, 폭력목격 집단 11명, 통제집단 12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통제집단의 참여자 1명이 혼합비율이 90%인 비교적 명백한 표정정서에 대한 인식 정확률이 70%로서 정서인식능력의 결함이 시사되었고, 본 연구는 애매한 표정에 대한 인식 편향에 초점을 두므로 이를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중복경험 집단 8명(남 5명, 여 3명), 폭력목격 집단 11명(남 5명, 여 6명), 통제집단 11명(남 5명, 여 6명) 총 30명(남 15명, 여 1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은 중복경험 집단, 폭력목격 집단, 통제집단이 각각 22.25세($SD = 2.49$), 21.73세($SD = 2.10$), 21.27세($SD = 1.95$)였다. 세 집단 간 남녀비율의 분포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집단 간 연령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 $\chi^2(2, N=30)=0.682$,

m ; $F(2, 27)=0.476, ns$.

측정도구

아동기 부모 간 폭력 질문지

부부간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제작하고 백경임(1998)이 번안한 갈등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2: CTS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을 변형해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을 측정하였다. 심리적 폭력(7문항), 신체적 폭력(12문항)을 사용하였다. 초등학생 및 이전 시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 빈도를 5점 척도(1점=전혀 없다, 2점=일 년에 1-2번, 3점=한 달에 1-2번, 4점=일주일에 1회 이상, 5점=거의 매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부 신체폭력 .92, 부 심리폭력 .88, 모 신체폭력 .88, 모 심리폭력 .85이었다.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

Bernstein과 Fink(1998)의 CTQ(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를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2009)이 번안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질문지(K-CT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 중 신체학대 5문항을 사용하여, 초등학생 및 이전시기에 부모 및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경험을 했는지 조사하였다.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항상 그랬다)로 아동기 외상 경험의 빈도를 측정한다. Bernstein과 Fink(1998)는 신체학대를 감별할 수 있는 최소기준으로서 8점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8점보다 1점 높은 9점을 절단점으로 상정하여 9점 이상을 신체학대 경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8점 미만을 학대경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신체학대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3이었다.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Life Stress Scale-Revised: LSS-R)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전점구, 김교헌, 이준석(2000)이 개정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이성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관한 17문항을 사용하였고, 스트레스 경험빈도와 중요도를 각각 0점(전혀)에서 3점(자주/매우)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1이었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표정정서 자극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총 10명의 연극동아리 학생과 일반인에게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제시한 후 이에 반응하여 표정을 짓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촬영된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놀람의 5개 범주의 사진 중 77장을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선택하였다. 자극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연구로 심리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9명과 일반인 12명, 총 21명에게 77장의 사진을 기쁨, 두려움, 분노, 슬픔, 놀람, 중립 중 하나로 평정하게 하였다. 중립을 제외한 다른 정서를 선택할 경우 동시에 그 정서의 강도를 5점 척도

(1=‘매우 약함’, 5=‘매우 강함’)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21명의 평정 결과를 토대로 각 정서의 범주 일치율이 90%이상인 세 명의 사진을 선정하였다(연습시행 자극 1명, 본 시행 자극 남녀

각 1명씩 총 3명). 결과적으로 기쁨, 분노, 슬픔, 놀람의 총 네 가지 정서가 실험에 사용될 원형정서자극으로 선정되었다. 각 배우별로 정서 범주 평정의 일치도가 70% 이상인 자극 중 정서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을 최종 선택하

표 1. 원형정서자극의 범주 일치율 및 정서강도

		분노	기쁨	슬픔	놀람
본 시행 (남)	범주 일치율	100%	95.5%	100%	95.5%
	정서강도평균 (0.94)	3.73 (0.94)	3.81 (0.81)	4.14 (0.89)	3.82 (0.85)
본 시행 (여)	범주 일치율	95.5%	100%	100%	90.9%
	정서강도평균 (1.05)	3.59 (1.05)	3.64 (0.85)	3.50 (0.86)	4.45 (0.74)
연습 시행	범주 일치율	90.9%	100%	100%	95.5%
	정서강도평균 (0.91)	3.82 (0.91)	3.41 (0.80)	2.64 (1.22)	4.50 (0.6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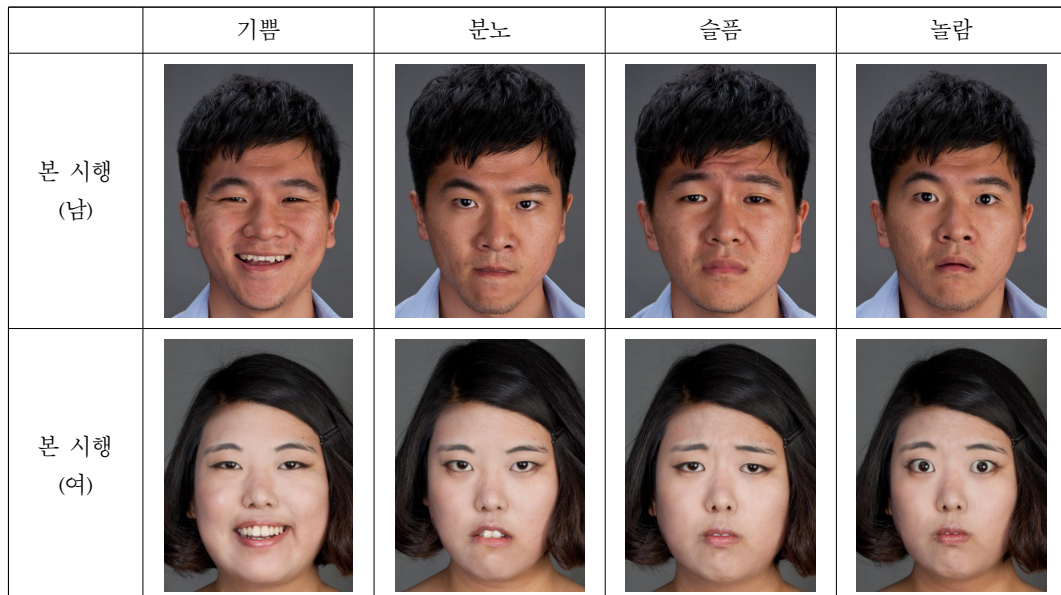


그림 1. 원형정서자극

였다. 실험에 사용된 원형정서자극의 평정일 치도와 정서강도를 표 1에, 자극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선정된 원형정서자극을 abrosoft Fantamorph4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였다(총 다섯 종류, 분노/기쁨, 분노/놀람, 분노/슬픔, 슬픔/기쁨, 슬픔/놀람). 두 종류의 정서를 혼합할 때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총 아홉 개의 혼합 자극을 산출하였다(예, 분노와 기쁨 혼합 자극의 경우, 분노 10%/기쁨90%, 분노20%/기쁨80%, 분노30%/기쁨70%, 분노40%/기쁨60%, 분노50%/기쁨50%, 분노60%/기쁨40%, 분노70%/기쁨30%, 분노80%/기쁨20%, 분노90%/기쁨10%). 합성 시 기준점은 헤어라인과 얼굴윤곽선, 코, 입, 눈썹을 포함하여 평균 100개였다. 몰핑을 통해 합성한 최종 실험자극의 예를 그림 2에 제시하

였다.

실험장치

실험은 개인용 랩탑 컴퓨터로 수행했으며, 기종은 후지쯔 lifebook Sseries7111, 화면 모니터 크기는 14인치, 해상도는 1024*768이었다. MATLAB R2009a(psychophysics toolbox)버전으로 실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행하였다. 자극은 370*493 픽셀로 통일되어 LCD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었고, 참여자와 모니터까지의 거리는 약 60센티미터가 유지되었다. 참여자는 자연광이 차단된 개별 실험실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랩탑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숫자패드를 통해 자극에 반응하였다.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혼합자극의 예시
(분노 포함 혼합자극 및 분노 미포함 혼합자극)

실험절차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실험을 시작하였다. 안내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본 실험은 화면에 제시되는 얼굴표정이 기쁨, 슬픔, 분노, 놀람의 네 가지 감정 중 어느 감정과 가까운지 판단하는 과제입니다. 스크린 가운데에 나타난 얼굴 표정을 보고 네 가지 감정 중 가장 비슷한 감정을 숫자버튼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실험 시작 전에 모니터에 반복하여 제시하였다.

실험은 연습시행과 본 시행으로 이루어졌다. 연습시행에서는 연습시행 모델(여) 자극 18개가 제시되었다(분노/슬픔 혼합 자극 9개, 기쁨/놀람 혼합 자극 9개). 본 시행은 세 블록으로 구성되었고, 매 블록마다 본 시행 남 모델과 여 모델의 다섯 종류 혼합자극이 제시되었다(분노/기쁨 9개, 분노/놀람 9개, 분노/슬픔 9개, 슬픔/기쁨 9개, 슬픔/놀람 9개, 5×9=45). 그 결과 한 블록에서 남 45개와 여 45개의 총 90개 자극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두 블록이 추가로 실시되었다. 참여자는 한 블록이 끝난 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블록을 실시하였다.

모니터 배경화면은 회색이었고, 표정자극이 제시되기 전 고정점(fixation)은 붉은 색 점으로 표시되었으며, 제시시간은 500ms였다. 표정자극은 5초간 모니터 중앙에 제시되었고, 자극 아래에 선택지(예, 1. 분노 2. 슬픔 3. 기쁨 4. 놀람)가 제시되었다. 정서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네 개의 버튼에 일렬로 1, 2, 3, 4 숫자가 부착된 숫자패드를 노트북 옆에 비치하여 참여자가 정서 선택 시 해당하는 숫자를 누르게 하였다. 정서종류와 숫자는 참여자 간에 무선화되었다. 자극은 5초 동안 제시되었고, 선택지는 추가로 10초간 제시되었다. 10초 내에 정서종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되었다. 표정자극 간의 휴지간격은 1초였다. 실험절차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각 표정자극에 대해 응답한 정서종류와 자극 제시 후 응답 시까지 걸린 시간을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별로 혼합 자극에 대해 분노라고 답한 비율을 계산하였고, 일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LSD를 수행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위해 분산의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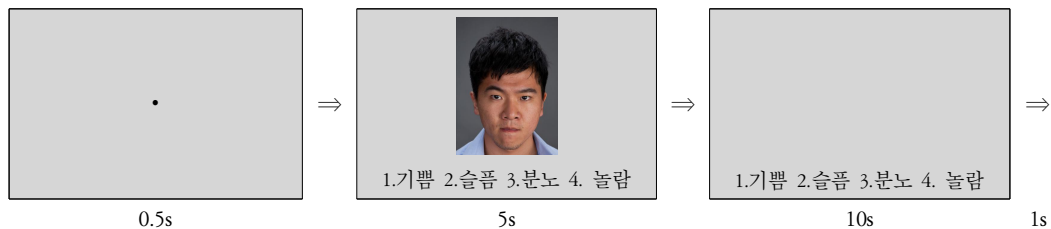


그림 3. 정서판단과제의 절차

결 과

성별에 따른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 전체평균 비교

집단별 최근 3개월 대인관계 스트레스 비교

최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표정정서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 집단의 최근 3개월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일원변량 분석하였다(표 2 참고). 변량분석을 위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Welch* 검정한 결과, 집단 간 최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W(2, 14.646)=2.988, m$. 집단별 평균을 살펴보면 최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중복경험집단이 가장 높고, 폭력목격 집단, 통제집단의 순서로 높은 경향성이 관찰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이후 분석에서 최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않았다.

총 다섯 종류의 혼합 자극에 대해 혼합비율과 상관없이 ‘분노’라고 응답한 비율의 전체평균을 계산하여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노/기쁨, 분노/놀람, 분노/슬픔, 슬픔/기쁨, 슬픔/놀람의 혼합 자극에 분노라고 응답한 전체평균 비율을 계산하여 일원 변량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노/놀람, 슬픔/놀람 혼합 자극에서만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각각 $F(1, 28)=6.386, p<.05, F(1, 28)=6.366, p<.05$, 분노/기쁨, 분노/슬픔, 슬픔/기쁨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 $F(1, 28)=2.722, m; F(1, 28)=0.989, m; F(1, 28)=0.384, m$. 즉 남자가 여자보다 분노/놀람 혼합 자극을 분노로 편향되게 응답하였고, 슬픔/놀람 혼합 자극에 대해서는 분노로

표 2. 집단별 최근 3개월간 대인관계 스트레스 변량분석 결과

	중복경험 (n=8)	폭력목격 (n=11)	통제집단 (n=11)	<i>Welch</i>
최근 대인관계 스트레스	25.75(16.26)	18.64(11.93)	11.91(7.78)	2.988

표 3. 성별에 따른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 전체평균의 변량분석

	남 (n=15)	여 (n=15)	<i>F</i>
분노/기쁨	.38(.07)	.33(.07)	2.722
분노/놀람	.56(.14)	.46(.08)	6.386*
분노/슬픔	.42(.06)	.40(.06)	0.989
슬픔/기쁨	.01(.01)	.00(.01)	0.384
슬픔/놀람	.07(.09)	.00(.01)	6.366*

주. * $p<.05$.

괄호 안은 표준편차.

오인식하는 반응편향을 보였다. 분노/놀람, 슬픔/놀람 혼합 자극에서 반응편향이 나타났으므로, 해당 자극에 대한 집단차를 살펴보고자 변량 분석하는 경우 성별을 공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집단별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 전체 평균 비교

총 다섯 종류의 혼합 자극에 대해 혼합비율과 상관없이 ‘분노’라고 응답한 비율의 전체평균을 계산하여 집단차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노/기쁨, 분노/놀람, 분노/슬픔, 슬픔/기쁨, 슬픔/놀람의 혼합 자극에 분노라고 응답한 전체평균 비율을 계산하여 일원 변량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서만 집단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2, 27)=4.812, p<.05$, 분노/놀람, 분노/슬픔, 슬픔/기쁨, 슬픔/놀람에서는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 $F(2, 27)=1.493, ns; F(2, 27)=1.023, ns; F(2,$

$27)=1.152, ns; F(2, 27)=2.381, ns$.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 대한 집단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한 결과, 중복경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분노/기쁨 혼합 자극을 분노로 편향되게 응답하였다. 폭력목적 집단의 분노 응답 비율은 통제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 결과에서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서만 집단차가 나타났으나, 분노/기쁨 혼합 자극 외에 모호한 개별 혼합 자극(예를 들어, 분노40%/슬픔60%)에서 집단차가 나타날 수 있다. 비교적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극보다, 애매한 자극에서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Richards et al., 2002), 두 정서가 10%와 90%로 혼합된 경우를 제외한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을 집단별로 일원 변량분석하였다. 분노가 포함된 자극에 대해 분노로 응답한 비율을 분석한 후, 분노가 포함되지 않은 자극에 대해 분노로 응답한 비율을 분석하여 분노 반응 편향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표 4. 집단별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 전체평균 변량분석 결과

	중복경험 (n=8)	폭력목적 (n=11)	통제집단 (n=11)	F	LSD
분노/기쁨	.41(.09)	.36(.06)	.31(.05)	4.812*	1>3
분노/놀람	.57(.18)	.49(.11)	.48(.07)	1.493	
분노/슬픔	.44(.06)	.40(.05)	.41(.06)	1.023	
슬픔/기쁨	.01(.01)	.00(.01)	.01(.01)	1.152	
슬픔/놀람	.08(.12)	.03(.05)	.01(.01)	2.381	

주. * $p<.05$.

괄호 안은 표준편차.

LSD 검증결과에서 부등호 표시는 각 조건에서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p<.05$) 더 크거나 작음을 나타냄. 비교의 편의를 위해 중복경험 집단을 1, 폭력목적 집단을 2, 통제집단을 3으로 표시함.

집단별 분노 포함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노/기쁨 혼합 자극 중에서는 분노60%/기쁨40%와 분노70%/기쁨30%에서 집단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각 $F(2, 27)=3.604, p<.05; F(2, 27)=4.071, p<.05$ (표 5)라 일원 변량분석 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표 5. 집단별 분노포함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 변량분석 결과

혼합정서	분노혼합 비율%	중복경험 (n=8)	폭력목격 (n=11)	통계집단 (n=11)	F	LSD
분노/기쁨	10	.00(.00)	.00(.00)	.00(.00)		
	20	.00(.00)	.03(.07)	.00(.00)	1.900	
	30	.02(.06)	.00(.00)	.00(.00)	1.414	
	40	.10(.18)	.02(.05)	.02(.05)	2.331	
	50	.19(.23)	.11(.11)	.08(.11)	1.312	
	60	.54(.21)	.38(.26)	.26(.20)	3.604*	1>3
	70	.85(.23)	.77(.21)	.58(.23)	4.071*	1, 2>3
	80	.96(.12)	.97(.07)	.88(.21)	1.192	
	90	.98(.06)	.98(.05)	1.00(.00)		
분노/놀람	10	.15(.29)	.03(.10)	.00(.00)		
	20	.25(.33)	.03(.10)	.02(.05)	4.544*	1>2, 3
	30	.27(.34)	.14(.16)	.03(.07)	3.167	
	40	.44(.32)	.32(.20)	.29(.21)	0.948	
	50	.67(.18)	.50(.21)	.50(.25)	1.722	
	60	.65(.24)	.73(.24)	.65(.17)	0.448	
	70	.85(.19)	.79(.20)	.86(.13)	0.615	
	80	.94(.09)	.95(.11)	.95(.08)	0.101	
	90	.94(.12)	.97(.07)	.98(.05)		
분노/슬픔	10	.04(.08)	.00(.00)	.00(.00)		
	20	.00(.00)	.02(.05)	.00(.00)	0.855	
	30	.00(.00)	.03(.10)	.05(.08)	0.809	
	40	.13(.15)	.06(.08)	.06(.08)	1.116	
	50	.27(.15)	.12(.15)	.26(.17)	2.769	
	60	.71(.23)	.52(.20)	.56(.21)	1.966	
	70	.94(.09)	.89(.11)	.83(.15)	1.760	
	80	.88(.12)	.98(.05)	.95(.08)	4.252*	2,3>1
	90	.98(.06)	.98(.05)	.95(.08)		

주. * $p<.05$.

괄호 안은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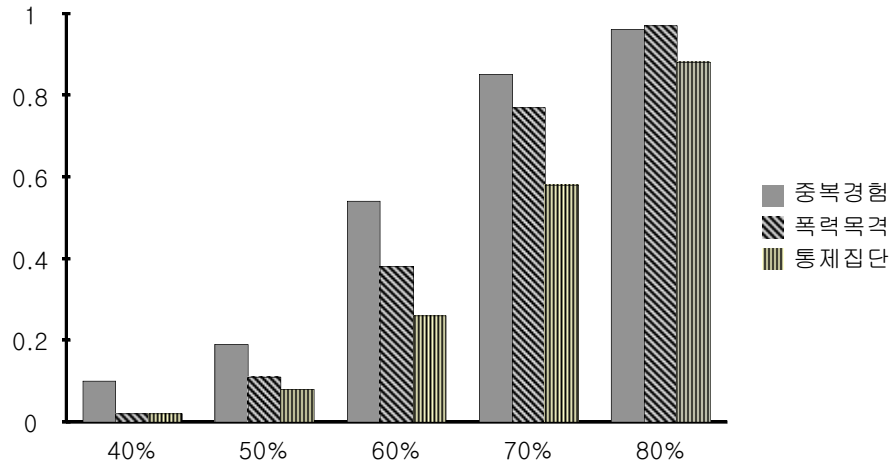


그림 4.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서 분노혼합비율에 따른 집단별 분노응답비율

참고). 사후검증 결과, 분노60%/기쁨40% 자극에 대해 중복경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분노라고 답하였으며, 분노70%/기쁨30% 자극에 대해 폭력목격 집단과 중복경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노라고 답하였고,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서 분노 혼합비율에 따른 집단별 분노응답비율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분노/놀람 혼합 자극 중에서는 분노20%/놀람80% 자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다, $F(2, 27)=4.544, p<.05$ (표 5 참고). 그러나 분노/놀람 혼합 자극에 대한 성차가 나타났으므로, 성별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단차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2, 27)=4.049, p<.05$. 사후검증한 결과, 중복경험 집단이 폭력목격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분노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두 집단이 분노에 대한 편향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분노/슬픔 혼합 자극 중에서는, 분노80%/슬픔20% 자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다, $F(2, 27)=4.252, p<.05$ (표 5 참고). 사후검증 결과, 중복경험 집단이 폭력목격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낮게 분노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복경험 집단에서 분노70%/슬픔30%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이 .94였으나 분노가 이보다 높게 포함된 분노80%/슬픔20% 자극에서는 .88로 응답비율이 저하되었다. 위 결과는 가설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분노 혼합 비율이 높을수록 분노라고 높게 응답하는 일반적 경향성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집단별 분노미포함 혼합 자극에 대한 슬픔 응답 비교

분노/기쁨과 분노/놀람 혼합 자극에서 나타난 분노 편향 반응이 부적정서 편향인지 검증

표 6. 집단별 분노미포함 혼합 자극에 대한 슬픔응답 비율 변량분석 결과

혼합 자극	슬픔 혼합비율%	중복경험 (n=8)	폭력목격 (n=11)	통제집단 (n=11)	F
슬픔/기쁨	20	.02(.06)	.02(.05)	.00(.00)	0.625
	30	.06(.09)	.02(.05)	.06(.20)	0.418
	40	.35(.19)	.24(.25)	.18(.31)	1.013
	50	.63(.28)	.70(.30)	.53(.31)	0.860
	60	.92(.09)	.85(.23)	.70(.39)	1.573
	70	.94(.09)	.98(.05)	.91(.17)	1.154
	80	.98(.06)	1.00(.00)	1.00(.00)	1.414
슬픔/놀람	20	.06(.09)	.00(.00)	.05(.11)	0.604
	30	.13(.19)	.09(.09)	.05(.11)	0.278
	40	.35(.11)	.26(.17)	.23(.24)	0.113
	50	.65(.27)	.58(.14)	.59(.29)	0.209
	60	.81(.14)	.79(.15)	.82(.17)	1.114
	70	.88(.17)	.92(.11)	.89(.15)	0.898
	80	.96(.08)	.98(.05)	.98(.05)	1.656

주. * $p < .05$.

괄호 안은 표준편차.

하기 위해, 슬픔/기쁨, 슬픔/놀람 혼합 자극에서 슬픔 편향 반응을 확인하였다. 만약 부적 정서 편향 반응이 나타난다면, 슬픔/기쁨, 슬픔/놀람 혼합 자극에 대해 중복경험 집단과 폭력목격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슬픔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분석 결과, 슬픔/기쁨 혼합 자극 중 각각 10%와 90% 혼합되어 비교적 명백한 자극을 제외한 7종류의 혼합 자극을 분석한 결과, 모든 자극에서 슬픔 편향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표 6 참고). 또한 슬픔/놀람 혼합 자극 중 7종류의 혼합 자극을 분석한 결과, 모든 자극에서 슬픔 편향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표 6 참고). 이 결과는 중복경험 집단과 폭력목격 집단이 부적 정서 편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분노에 특정한 편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집단별 분노 미포함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 응답 비교

분노가 포함되지 않은 혼합 자극을 분노라고 응답할 경우, 이는 애매한 자극을 분노로 오인식하는 일반화된 반응편향과 관련될 수 있다. 슬픔/기쁨 혼합 자극에서는 분노 응답비율의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슬픔/놀람 혼합 자극 중 슬픔20%/놀람8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다, $F(2, 27)=3.555, p < .05$ (표 7 참고). 그러나 슬픔/놀람 혼합 자극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분노로 오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성별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

표 7. 집단별 분노미포함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 변량분석 결과

혼합 자극	슬픔 혼합비율%	중복경험 (n=8)	폭력목격 (n=11)	통제집단 (n=11)	F
슬픔/기쁨	10	.00(.00)	.00(.00)	.00(.00)	
	20	.00(.00)	.02(.05)	.00(.00)	0.855
	30	.02(.06)	.00(.00)	.02(.05)	0.625
	40	.00(.00)	.00(.00)	.00(.00)	
	50	.00(.00)	.00(.00)	.03(.07)	1.900
	60	.00(.00)	.00(.00)	.00(.00)	
	70	.04(.08)	.00(.00)	.00(.00)	3.300
	80	.02(.06)	.00(.00)	.00(.00)	1.414
	90	.00(.00)	.00(.00)	.00(.00)	
슬픔/놀람	10	.13(.35)	.00(.00)	.00(.00)	
	20	.19(.29)	.03(.10)	.00(.00)	3.555*
	30	.10(.23)	.06(.11)	.02(.05)	0.934
	40	.13(.23)	.05(.08)	.02(.05)	1.689
	50	.10(.12)	.09(.14)	.03(.07)	1.244
	60	.02(.06)	.05(.08)	.02(.05)	0.683
	70	.02(.06)	.02(.05)	.00(.00)	0.625
	80	.02(.06)	.00(.00)	.00(.00)	1.414
	90	.00(.00)	.00(.00)	.00(.00)	

주. * $p < .05$.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8. 집단별 혼합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평균

혼합정서	중복경험 (n=8)	폭력목격 (n=11)	통제집단 (n=11)
분노/기쁨	1671.70(476.86)	1466.63(478.38)	1519.45(401.29)
분노/놀람	1534.54(373.94)	1373.15(328.90)	1398.59(330.04)
분노/슬픔	1591.12(404.31)	1505.49(469.16)	1469.55(303.24)
슬픔/기쁨	1551.30(340.84)	1346.52(393.68)	1412.24(356.51)
슬픔/놀람	1792.58(351.97)	1611.91(478.15)	1447.26(317.22)

주. 단위는 ms

괄호 안은 표준편차.

과, 슬픔20%/놀람80%에서 집단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27)=3.086, ns$. 즉 집단별로 분노미포함 혼합 자극을 분노로 편향되게 인식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별 각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비교

각 혼합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에서 집단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노/기쁨, 분노/놀람, 분노/슬픔, 슬픔/기쁨, 슬픔/놀람 다섯 종류의 혼합 자극에 대해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다(표 8 참고). 그 결과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노/기쁨, $F(2, 27)=0.474, ns$; 분노/놀람, $F(2, 27)=0.291, ns$; 분노/슬픔, $F(2, 27)=0.221, ns$; 슬픔/기쁨, $F(2, 27)=0.956, ns$; 슬픔/놀람, $F(2, 27)=1.122, ns$.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집단이 분노에 대해 편향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폭력목격 집단과 중복경험 집단은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 대해 분노 편향 반응을 나타냈다. 이로써 폭력목격 집단과 중복경험 집단이 분노 편향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부분 지지되었다. 폭력목격 집단이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서 분노 편향 반응을 나타낸 것은 아동기 신체학대 경험이 없을 지라도 폭력을 빈번하게 목격할 경우 분노표정에 대한 과민성이나 분노표정 인식의 편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중복경험 집단이 분노 편향 반응을 나타낸 것은 아동기에 신체학대를 경험한 성인이 분노 편향 반응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Gibb et al.,

2009)와 일치된 결과였다.

분노가 포함된 세 가지 혼합 자극 중 분노/기쁨에서만 분노 편향반응이 관찰되었고, 분노/놀람, 분노/슬픔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Scrimin 등(2009)의 테러 피해아동 연구에서 분노/슬픔 혼합 자극에 대해 분노 편향 반응이 관찰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박수진과 정우현(2006)은 표정 정서에 대한 쾌, 불쾌와 같은 전반적인 판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개별 정서의 세세한 구별이나 미묘한 정서 변별에서는 보다 긴 시간과 고주파수 정보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둘다 불쾌자극 범주에 포함되는 분노/슬픔 혼합 자극이 불쾌/쾌 혼합자극인 분노/기쁨 혼합자극에 비해 정서 종류 변별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요구되고 변별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놀람 정서 또한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중립적 정서에 해당하므로, 불쾌/쾌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 즉각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세 집단 모두에서 분노/슬픔, 분노/놀람 혼합 자극에 대한 신속한 정서 변별이 어려워, 분노인식편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분노/기쁨 혼합자극에서는 여타 혼합자극에 비해 변별이 용이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을 수 있다. 분노/슬픔 40%/60%, 60%/40% 혼합 자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중복경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분노라고 응답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던 점도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노/기쁨, 분노/놀람 혼합 자극에서 관찰된 분노 편향 반응이 분노에 특정한 편향 반응인지, 부정정서 편향인지 확인하고자 슬픔/기

쁨, 슬픔/놀람 혼합 자극에 대한 슬픔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슬픔 편향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는 편향반응이 분노에 특정적임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 분노표정에 빈번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편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한다.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응답 비율을 혼합비율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 중복경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분노라고 응답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폭력목격 집단도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분노라고 응답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 대해 참여자들이 보고한 것을 종합할 때, 분노/기쁨 혼합 자극을 비롯한 표정과 연관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한 참여자는 ‘남자가 비열해 보이는 느낌’이라고 평하였고, 다른 참여자는 ‘썩은 미소 같았다.’라고 보고하였다. 중복경험 집단의 한 참여자는 ‘입은 웃는데 눈은 화가 난 것 같아서 분노라고 했어요.’ 라고 보고하였다. 즉 중복경험 집단이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서 분노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비웃음이나 분노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분노/기쁨 혼합 자극에 대한 분노편향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타인의 웃는 표정을 자신에 대한 위협이나 부정적 평가로 인식하여 회피나 공격과 같은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Crick & Dodge, 1994; Dodge, Bates, & Pettit, 1990). 그러므로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과 신체학대 경험이 있는 내담자 개입 시 대인관계 부적응이 정서정보 처리의 편향과 관련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분노 미포함 혼합 자극을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슬픔/놀람 혼합 자극에 대해 분노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는 집단차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복경험 집단이 분노에 대한 과민성을 보이지만, 일반화된 분노 반응 편향(*generalized response bias*)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Gibb 등(2009)과 Pollak과 Sinha(2002)의 연구에서 일반화된 반응 편향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과 일관된 결과이다. 다만, 김은경과 이정숙(2009)의 연구에서 학대받은 아동이 기쁨, 놀람, 슬픔, 두려움 등의 비적대적 정서를 분노, 경멸 등의 적대적 정서로 편향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 아동기에 외상 경험을 한 집단이 표정정서를 부정적으로 편향되게 인식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화된 분노 반응편향은 안전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 정서를 분노로 오인하고 개인이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을 과도하게 경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반화된 분노 반응편향은 개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Dodge 등(1990) 또한 사회정보처리에서의 부정확성이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분노 과민성도 일반화된 분노 반응편향처럼 대인관계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여, 개인의 사회적 적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사회적 정보가 충분하게 수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노와 같은 위협단서에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성급하게 공격적이거나 회피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위협적이고 폭력적 상황에서 성장한 개인은 타인이나 주위 환경을 이미 적대적으로 인식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van der Kolk, 1996),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정보처리 편향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적 개입에서는 내담자가 정보처리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접근 방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분노 80%/슬픔 20% 자극에서 중복경험 집단이 폭력목격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낮게 분노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여타 자극 조건에서 분노 혼합 비율이 높을수록 분노라고 높게 응답하는 일반적 경향성이 관찰되는데, 분노 80%/슬픔 20% 자극을 포함한 전후 자극에서만 이와 불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가 분노인식 편향을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사례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실수와 같은 여타 요인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정정서인식의 성차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분노/놀람, 슬픔/놀람 혼합 자극을 분노로 편향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양재원, 박나래, 정경미(2011)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 인식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민감하게 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표정정서인식에 성차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정서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Sasson et al., 2010).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노가 포함된 일부 자극(분노/놀람)과 분노가 포함되지 않은 일부 자극(슬픔/놀람)에서 성별에 따른 분노편

향 반응이 나타났는데, 해당 자극들의 공통점은 놀람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놀람은 중립적인 정서로서 쾌/불쾌의 차원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모호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남자가 정확한 정서인식 능력이 여자에 비해 부족하여 애매한 놀람 표정자극을 부적절로 편향되게 해석하면서 이를 분노로 연관지었을 수 있다. 표정정서인식 연구에서 놀람 정서는 대체로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가능성은 성차와 관련된 추후 연구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는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및 신체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표정정서인식을 연구했다는 강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최근 3개월 간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집단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세 집단 중 중복경험집단이 최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폭력목격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않았으나, 아동기 신체 학대 경험과 부모간 폭력을 목격 경험이 성인기 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성인기에 대인관계의 부정적 사건에 높은 빈도로 노출되면서 표정정서인식 편향이 나타나거나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애매한 자극에 대한 분노 편향반응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원형정서인식에 대하여 탐색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탐색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복경험 집단 중 1명의 놀람 표정에 대한 인식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선행연구에서도 학

대 받은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은 통제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Camras et al., 1988), 아동기 외상 중 특히 학대가 성인기 원형정서 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주의나 go-no go test와 같은 다른 실험 패러다임에서 분노표정처리 편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Pine et al., 2005; Pollak & Tolley-Schell, 2003).

van der Kolk, Roth, Pelcovitz, Sunday와 Spinazzola(2005)는 아동기 외상이 다양한 영역의 손상을 야기하므로 지각, 정보처리를 포함한 폭넓은 영역의 증상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정보처리 관점에서,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성인기 표정정서 인식에 관련된다는 점을 검증하고,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외의 다양한 생활 사건이 성인기 표정정서 인식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은 표본 수가 개인차의 혼입 등을 통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자기보고로 부모 간 폭력 목격과 학대 경험을 측정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참고문헌

김은경, 이정숙 (2009). 학대받은 아동의 표정 인식, 표정해석, 의도귀인에서의 반응편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13-129.

박수진, 정우현 (2006). 공간 주파수 필터링이 표정 인식 및 연령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8(4), 311-324.

백경임 (1998). CTS(Conflict Tactics Scales)2의 자녀용으로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대한 타당성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6(2), 77-89.

양재원, 박나래, 정경미 (2011).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고등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75-495.

오경자, 배도희 (2002). 아동 청소년의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인식능력과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15-532.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전경구, 김교헌,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Harcourt Brace.

Briere, J. (2002). Treating adult survivors of severe childhood abuse and neglect: Further development of an integrative model. In J. E. B. Myers, L. Berliner, J. Briere, C. T. Hendrix, T. Reid, & C. Jenny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nd Edition* (pp.175-202).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Calder, A. J., Young, A. W., Rowland, D., Perrett, D. O., Hodges, J. R., & Ectoff, N. L. (1996). Facial emotion recognition after bilateral amygdala damage: Differentially severe impairment of fear. *Cognitive*

- Neuropsychology*, 13, 699-745.
- Camras, L. A., Ribordy, S., Hill, J., Martino, S., Spaccarelli, S., & Stefani, R. (1988). Recognition and posing of emotional expressions by abus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76-781.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Foa, E. B., & Kozak, M. J. (1986). Emotional processing of fear: Exposure to corrective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9, 20-35.
- Gibb, B. E., Schofield, C. A., & Coles, M. E. (2009). Reported history of childhood abuse and young adults' information-processing biases for facial displays of emotion. *Child Maltreatment*, 14, 148-156.
- Halberstadt, A. G., Denham, S. A., & Dunsmore, J. C. (2001).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79-119.
- Margolin, G. (2005).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Explor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diverse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72-81.
- Marsh, A. A., Adams, R. B., & Kleck, R. E. (2005). Why do fear and anger look the way they do? Form and social function in facial expre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73-86.
- Masten, C. L., Guyer, A. E., Hodgdon, H. B., McClure, E. B., Charney, D. S., Ernst, M., Kaufman, J., Pine, D. S., & Monk, C. S. (2008). Recognition of facial emotions among maltreated children with high r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ild Abuse & Neglect*, 23, 139-153.
- Osofsky, J. D. (2003). Prevalence of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 161-170.
- Pine, D. S., Mogg, K., Bradley, B. P., Montgomery, LA., Monk, C. S., McClure, E., Guyer, A. E., Ernst, M., Charney, D. S., & Kaufman, J. (2005). Attention bias to threat in maltreated children: Implications for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psychopat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291-296.
- Pollak, S. D. & Sinha, P. (2002). Effects of early experience on children's recognition of facial displays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 784-791.
- Pollak, S. D. & Tolley-Schell, S. A. (2003). Selective attention to facial emotion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323-338.
- Richards, A., French, C. C., Calder, A. J., Webb, B., Fox, R., & Young, A. W. (2002). Anxiety-related bias in the classification of emotionally ambiguous facial expressions. *Emotion*, 2, 273-287.
- Sasson, N. J., Pinkham, A. E., Richard, J., Hughett, P., Gur, R. E., & Gur, R. C. (2010). Controlling for response biases clarifies sex and age differences in facial affect recognitio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34,

- 207-221.
- Scrimin, S., Moscardino, U., Capello, F., Altoe, G., & Axia, G. (2009). Recogni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mixed emotions in school-age children exposed to terrorism. *Developmental Psychology, 45*, 1341-1352.
- Shenk, C. E., Putnam, F. W., & Noll, J. G. (2013). Predicting the accuracy of facial affect recognition: The interaction of child maltreatment and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4*, 229-242.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Suzuki, A., Hoshino, T., & Shigemasu, K. (2006).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ies to basic emotions in faces. *Cognition, 99*, 327-353.
-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ological development. In A. C. McFarlane & L. Weisaeth (Eds.),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pp.182-213). New York: Guilford Press.
-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389-399.

원고접수일 : 2014. 09.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5. 07. 03.

게재결정일 : 2015. 07. 06.

The Impact of Inter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on Adults' Facial Emotion recognition

Hae-ri Kim

Hoon-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during childhood is considered to be a traumatic event, which may have enduring effects on one's interpersonal and affective domain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inter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and emotion recognition biases for facial displays of emotion. College students ($n=11$) who witnessed interparental violence without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displayed recognition bias for anger to a stimulus in which anger and joy were mixed. The group exposed to interparental violence in addition to abuse during childhood ($n=8$) exhibited recognition bias for anger when anger was mixed with joy and with surprise. Their recognition bias was specific to anger rather than sadness. This indicates that recognition bias for anger may occur generally in a group with childhood abuse histo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processing biases such as emotion recognition bia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parental violence, recognition bias in facial emotions, anger, physical abuse